

격 려 사

우리 종단은 올해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60년대는 419혁명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격동의 시기에 출범한 우리 종단은 조선왕조의 억불정책과 일제강점기의 왜색불교를 청산하고 교단재건과 불교중흥의 책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수행자의 본분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종단의 정신은 1954년 승단정화 운동과 1947년 봉암사결사 그리고 1937년 총본산건립운동과 1920년 선학원 창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통합종단의 출범은 청정승단의 계승,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교단의 건설, 역사와 사회에 부응하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입니다.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국민소득 250달러에서 2만달러로 성장하였으며 우리 교단도 교육과 포교 사회적 역할 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높은 자살률과 불평등지수, 남북분단과 사회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도 다방면에서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50년의 성찰과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한 오늘 세미나에서 종단과 사부대중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종도들의 지혜와 원력이 결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종단은 사회와 역사에 자리이타 동체대비의 본분사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성과 쇄신,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위한 1000일 정진이 원만히 성취되어야 합니다. 봉암사 결사의 ‘부처님 법대로’를 계승하여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로 세분된 5대 분야의 결사 실천을 통해서 뜻 생명의 행복과 안락을 이루는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종단의 과거와 현재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세미나를 준비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불교사회 연구소장 법안스님을 비롯하여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스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기2556년 4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